

기고

국 중 균 광주북부소방서 현장지휘 담당



행복은 사소한 곳에 숨어있다

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해 지고 싶어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.

누구나 찾는 행복은 언제나 나하고는 반대편에 있다고 하면서 항상 불만만 가득하다. 모두가 다 행복을 바라는데 그 행복을 얻을 수 없을까? 기대는 큰데 나의 욕심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.

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더 행복해질 수 있다.

행복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행복해 지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. 물건을 사는데 공짜가 없듯이 대가를 치루지 않은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. 그것은 자연의 섭리다.

동물의 세계도 식물의 세계도 다 같이 자연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을 얻기 위해 무한 경쟁을 하고 동물은 약자를 잡아먹기 위해 쫓는다. 그래야 허기를 면하

고 식물은 지하에 영양분을 빨아 올려야 자랄 수 있다. 벌과 나비도 공짜로 꿀을 얻지 못하며 일한 대가로 꿀을 얻는다.

흔히 사람들은 무엇으로도 잘 만족할 줄을 모른다. 이것이 요즘 사람들의 공통된 병이다. 그래서 늘 폭이 다른 상태와 비슷하게 살아간다.

겉으로는 반짝거리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정신적으로는 초라하고 가난하다. 크고 많은 것만을 원하기 때문에 작은 것과 적은 것에서 오는 행복의 조건은 모른다. 그것은 다름 아닌 아름다움과 실패함과 사랑스러움과 고마움에 있다.

나는 향기로운 차 한 잔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때가 있다. 내 삶의 고마움을 느낄 때도 아주 많다. 도로변을 지나다가 무심히 피어 있는 한 송이 꽃무릇 앞에서도 얼마든지 나는 행복할 수 있고 그 꽃을 통해서 하루에

필요한 정신적 양식을 얻을 수 있다.

또 다정한 친구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 전화 한 통화를 통해서도 나는 행복해진다. 행복은 이처럼 일상적이고 사소한 데 있는 것이지 크고 많은 데 있지 않다. 사람이란 누구나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늘 행복을 확인할 수 있다.

가진 것이 많아서 베푸는 것이 아니고 자기 능력에 맞게 베푸는 것이다.

남에게 베풀 때 마음이 흐트러지지 행복 호르몬 엔돌핀이 분비되어 건강에도 좋다. 남을 칭찬하는 것도 하나의 베푸는 일이며 이렇게 사는 삶이 건강하고 진정 행복한 삶이다. 우리 모두 행복을 큰 곳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행복은 작은 것과 적은 것 속의 사소한 곳에 숨어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.

조금은 그래도 살아 갈 날에 희망이 있지 아직은 청춘이라고 생각하고 착각 아닌 착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행복과 희망을 가슴속에 가득 채웠으니 부러울 것은 없다.

인생을 백세까지 산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그래도 백수를 한다면 이제 절반 조금 넘은 것이 아닌 반 평생은 추억을 만들고 살았다면 이제 남은 인생은 추억을 그리며 살아가야 할 인생이 아니려나.

주머니가 가득 채워진 부자도 가진 건 하나 없는 빈털털이가 난쟁이도 살아가는 세상에서 다 같은 인생이지만 풍족한 생활과 궁핍한 생활의 차이 뿐이다.

사람들은 말한다 죽을 때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왜 저리 아동바둥 모으려고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개같이 벌어 정승처럼 쓰라는 말도 있다.

반 평생 넘게 살아 오면서 지금까지 희망을 가지고 살아 왔으니 이제부터 추억을 가지고 살아 가면서 풍족하진 않지만 베풀면서 남은 인생을 살고 싶다.

아쉬움이 남는 것은 조금 더 열심히 살 걸 그때도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후회하는 것보다 행복하고 즐거웠던 날들이 더 많은 것은 반평생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았다는 뿌듯함에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살린다.

社 說

아동 대상 성범죄 엄단해야

최근 3년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가 17.9% 늘었고, 피해 아동은 3천 6백명을 넘었다.

정인화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,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3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총 3,621건 발생했다.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는 ▲ 2016년 1,083건, ▲ 2017년 1,261건, ▲ 2018년 1,277건으로 해마다 늘었으며 2016년에 비해 17.9% 증가했다.

유형별로는 강간·강제추행이 2016년 1,009건에서 2018년 1,181건으로 17건 늘어났고, 13세 미만 아동에게 스마트폰,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글이나 그림을 전송하는 '통신매체이용음란죄' 위반도 2016년 50건에서 2018년은 22건이 늘어난 72건이었다. 지역별로 살펴보면, ▲ 경남(2016년 59건 → 2018년 92건, 증가율 55.9%), ▲ 대전(27건 → 37건, 37%), ▲ 충북(33건 → 45건, 36.4%), ▲ 경기북부(59건 → 79

건, 33.9%), ▲ 대구(35건 → 46건, 31.4%) 순으로 늘어났다.

반면, 광주는 2016년 46건이었으나 2018년에는 33건으로 28.3% 감소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동 성범죄가 줄어든 지역으로 파악됐다.

피해아동 성별 현황은 총 3,621명 중 여아가 3,140명(86.7%), 남아가 481명(13.3%)으로 피해아동은 대부분 여아였다.

연도별 여아 피해자는 ▲ 2016년 945명(87.3%), ▲ 2017년 1,090명(86.4%), ▲ 2018년 1,105명(86.5%)였다. 남아 피해자도 2016년 138명, 2017년 171명, 2018년 172명 발생해 적지 않은 글이나 그림을 전송하는 '통신매체이용음란죄' 위반도 2016년 50건에서 2018년은 22건이 늘어난 72건이었다. 지역별로 살펴보면, ▲ 경남(2016년 59건 → 2018년 92건, 증가율 55.9%), ▲ 대전(27건 → 37건, 37%), ▲ 충북(33건 → 45건, 36.4%), ▲ 경기북부(59건 → 79

건, 33.9%), ▲ 대구(35건 → 46건, 31.4%) 순으로 늘어났다. 반면, 광주는 2016년 46건이었으나 2018년에는 33건으로 28.3% 감소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동 성범죄가 줄어든 지역으로 파악됐다. 피해아동 성별 현황은 총 3,621명 중 여아가 3,140명(86.7%), 남아가 481명(13.3%)으로 피해아동은 대부분 여아였다. 연도별 여아 피해자는 ▲ 2016년 945명(87.3%), ▲ 2017년 1,090명(86.4%), ▲ 2018년 1,105명(86.5%)였다. 남아 피해자도 2016년 138명, 2017년 171명, 2018년 172명 발생해 적지 않은 글이나 그림을 전송하는 '통신매체이용음란죄' 위반도 2016년 50건에서 2018년은 22건이 늘어난 72건이었다. 지역별로 살펴보면, ▲ 경남(2016년 59건 → 2018년 92건, 증가율 55.9%), ▲ 대전(27건 → 37건, 37%), ▲ 충북(33건 → 45건, 36.4%), ▲ 경기북부(59건 → 79

생활정보전화

긴급전화

- ▲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-1366
- ▲응급질병상담 1399
- ▲미아·가출인신고 182
- ▲여성 긴급전화 1366
- ▲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
- ▲아동보호전문기관 1577-1391
- ▲노인보호전문기관 1577-1389
- ▲응급의료센터 1399

- ▲기상예보 131
- ▲법률구조상담 132
- ▲인평알코올상담센터 222-5666
- ▲광주 남성의전화 673-9001
- ▲광주 여성의전화 363-7739
- ▲수도고장신고 121
- ▲전기고장신고 123
- ▲가스사고신고 383-0019

독자투고 E-mail : ihonam@naver.com

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
생명 살리는 길을 열어주세요

5분이란 시간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! 화재발생시 5분의 시간은 생명을 지킬 수도, 잃을 수도 있는 시간이다.

화재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차가 사고현장까지 도착하는 시간은 5분.

화재발생 5분이 지나면 '타다닥하다 화르르' 다 타고 만다.

열이 축적되어 있다가 일정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화염이 실내 전체에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'플래시 오버'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피해는 점점 커지게 된다.

5분 안에 화재를 진압해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가.

하지만 불법주차 및 차량 양보를 안하는 일부 운전자 때문에 '소방차 길 터주기' 가 잘 안되어 손실은 커질 수 밖에 없다.

도로나 아파트 부지 내 황색으로 '소방차 전용' 이란 표기가 되어 있는데도 주차를 하는가 하면 출동할 때 "소방차·구급차를 보면 양보해 주세요"를 연발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, 심지어 소방차 앞에 끼어드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된다.

화재를 진압하려 가는 소방차가 무전으로 "지금 차량 정체로 거의 다 오긴 했는데 연기가 보여요"라고 들려오는 소리를 종종 듣곤 한다.

1분1초가 너무 소중한 때 사이렌을 울려도 비켜주지 않을 때는 많이 답답하다.

양보하지 않거나 불법 주정차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.

갓길이나 횡단보도, 건물이 많은 지역에 불법 주·정차하는 양심불량 행동은 자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다.

이를 지키지 않을 때 범칙금이 부과되는 건 물론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당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'소방차 길 터주기'에 솔선 실천하여 화재현장 신속진압과 응급환자 생명을 제고를 위한 한발 앞선 현장대응으로 인명피해가 없도록 운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.

최성영 / 화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

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

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

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?

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?

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.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.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.

한국언론진흥재단

등록번호: 광주가 00021 (일반)

대표이사·회장·발행인 김 경 호

편집인·편집국장 강 서 원

호남신문

본 사 : 광주광역시 동구남문로 753번길 7
서울취재본부 :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-16
Tel (02) 2238-0003

대표전화 (062) 229-6000

광고국 (062) 224-5800

팩스 (062) 222-5547

인터넷 호남신문 www.i-honam.com

1946년 3월 창간 / 구독료 월 10,000원 1부 500원 인 쇄 (주)남도브런테크

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.